

내일신문

여성

여성 편집부

직 통 338-7480 팩 스 337-1858

새로운 여성 · 새로운 가정 · 새로운 세상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창립대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높이는 장으로”



▲풍선을 들고 노래하는 가족 합창단
◀301가족합창단으로 마무리 지으며 “낮은 문턱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최영희 여성문화센터 회장겸 본사 대표이사.
▼배우로 변신, 열연하고 있는 여성문화센터 회원들



▲축사를 하고 있는 서울대 이수성 총장
◀화창한 봄날을 맞아 행사장으로 모여드는 가족들
▼객석에서 함께 노래하는 여성회원들

아주 작은 꼬마 어린이들이 화려한 조명의 무대에서 <수퍼맨의 비애>를 부르고 있다. 사회를 맡은 본사 문화센터 중앙운영위원인 KBS의 유애리 아나운서가 ‘비애’가 뭐냐고 묻자 최중진(7)군은 대단히 미안한 듯 모르겠다. 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참석자들은 웃음보를 터뜨렸다.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남성을 막론하고 이 아이들처럼 비애를 모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3월1일 세계일보 대강당에서는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창립기념 <내일을 여는 여성>대회가 열렸다.

먼저 여는 마당으로 성남 여성문

화센터 회원의 자녀들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 이천지역 내일신문 주주 독자들의 남성합창으로 대회를 열어줄 예정이다.

이어진 발족식에서 최영희 문화센터 회장겸 본사 대표이사는 대회를 통해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는 자기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댄채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는 공동의 장이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는 문턱은 낮고 내용은 깊고

서울대학교 이수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를 비롯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권모술수와 부도덕한 행태가 판치는 정치권에서도 도덕성과 투명성의 장점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이 가족, 연대 총여학생회, 가수 안혜경씨의 축가와 가족 발연대, 그리고 회원들이 배우로 출연한 연극 <우리가 서있는 자리> 공연이 있었다.

특히 ‘나’ ‘가족’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을 기리는 날인 3·1절을 맞아 발족식을 하는 기념으로 전국에서 구성된, 301가족 합창단의 ‘바위처럼’ ‘그날이 오면’ ‘손을 잡아요’ 등의 우렁찬 합창곡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가,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을 힘겹게 사는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 어달라” 당부하기도 했다.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는 현재

215명의 중앙운영위원 및 각 지역별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본부 임원진으로는 회장에 최영희, 부회장 구성애, 사무국장 오혜옥씨 등이며 지역문화센터는 성남 김향선, 부산 이경선, 안양 김정만씨가 회장을 맡고있다. 광주 청주 안산 부천 수원 등의 지역에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곧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변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장을 열겠다는 여성문화센터는, 우선 각 지역별로 여성 주주 독자들의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의정지기 모임을 구성하고, 올바른 지역 역군을 선출해야 하는 지자체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출해 내기로 했다.

또 매월 정세와 지자체, 소비 환경운동의 관점과 방향, 여성정책 진단, 사회문화와 여성, 여성과 통일운동, 교육제도 고찰과 방향 등을 주제로 정기적인 연구·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중에 있다.

구성원별로 주부 사무직 생산직 분과가 있으며, 교육, 소비 환경, 생활문화, 성교육, 법 연구 모임 등의 상설 연구모임도 있다. <심정혜 기자>



폭을 넓혀, 여성들이 직장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여 정치·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장이 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는 각오를 밝혔다.